

<근대 한국어 사전 원고>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 경과와 그 의의



김슬웅

한글학회 이사,
세종국어문화원 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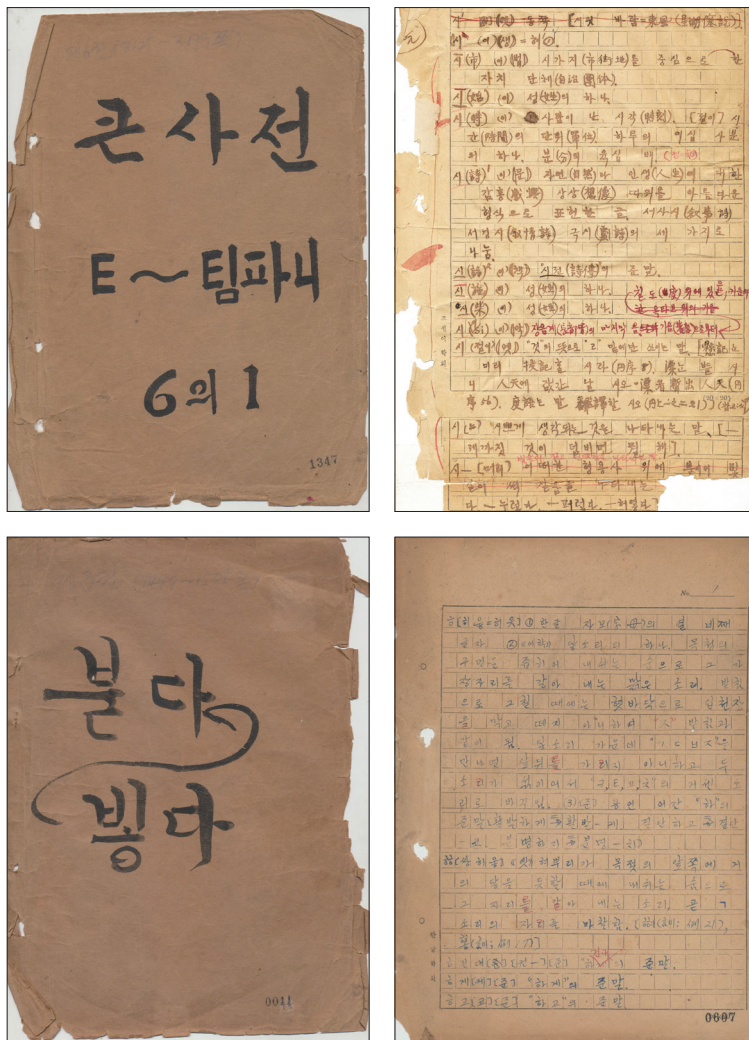
1. 머리말

세계기록유산(Memory of the World)은 유네스코가 1992년 창설한 사업으로서, 인류의 문화적 유산 중 기록물의 보존과 접근성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는 1997년 ‘훈민정음 해례본’과 ‘조선왕조실록’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20건이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어, 세계 4위이자 아시아 1위의 기록문화 강국으로 우뚝 섰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한글학회가 추진한 <근대 한국어 사전 원고>의 세계기록유산 등재 사업은 각별한 주목을 요한다. <말모이> 원고와 <조선말 큰사전> 원고로 대표되는 이 기록물군은 단순한 사전 편찬 자료의 범주를 넘어선다. 이는 20세기 초 일제의 식민 통치와 언어 탄압 속에서 민족어를 지키고 체계화하려 했던 선각자들의 투쟁과 헌신을 증거하는 역사적 기록물이다. 주시경, 김두봉, 이극로, 최현배, 정인승, 이희승 등 한

글학자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낸 이 원고들은 언어가 곧 민족의 정체성이며, 그 보존이 곧 독립운동의 일환이었음을 생생히 보여준다.

이 글에서는 한글학회가 2023년 1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약 2년에 걸쳐 추진한 세계기록유산 등재 준비 과정을 정리하고, 그 학술사적 의의와 시사점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향후 유사 사업의 추진에 참고가 될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한편, <근대 한국어 사전 원고>가 지닌 세계사적 가치를 재조명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한글학회와 독립기념관에 분산 소장중인 <큰사전> 원본 원고-한글학회

2. 추진 경과 요약

가. 준비위원회 구성 및 초기 활동 (2023.11.~2024.05.)

2023년 11월 13일 <큰사전> 원고의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위한 준비위원회 구성이 시작되었다. 같은 해 11월 28일 김주원, 이해은, 김한빛나리 세 위원으로 1차 구성을 마쳤으며, 12월 27일 비대면 방식으로 첫 회의를 개최하였다. 2024년 2월 21일 등재 신청서 국문 초고가 완성되었고, 3월 5일 첫 대면회의가 열렸다. 2024년 5월 16일 김주원 위원장을 비롯하여 이관규, 이해은, 이병규, 반병률, 유철인, 남길임, 도원영, 박동윤, 김한빛나리 등 9인의 위원으로 준비위원회 구성이 완료되었다.

나. 신청서 작성 및 제출 (2024.06.~2024.12.)

2024년 6월부터 본격적인 신청서 작성 작업이 진행되었다. 양성평등 관련 내용 추가, 수차례의 수정 회의를 거쳐 11월 20일 영문 번역본 초안이 완성되었다. 12월 13일 관련 분야 전문가 6인(신용하, 김경, 남길임, 이만열, 박한상, 이찬규)의 확인서를 받았으며, 12월 19일 세계기록유산 한국위원회 사무국에 '2025년 세계기록유산 국제목록 등재 신청서'를 최초 제출하였다.

다. 심의 및 보완 과정 (2025.01.~2025.11.)

2025년 3월 14일 세계기록유산 한국위원회 심사회의회가 개최되었으나, 3월 18일 '보류' 판정과 함께 보완 요청을 받았다. 이에 준비위원회는 등재 대상을 <말모이>와 <큰사전 원고>로 국한하고, 신청 명칭을 <근대 한국어 사전 원고>로 변경하였다. 4월 13일에는 '언어 주권의 확립: 조선말 사전 원고(Establishing Linguistic Sovereignty—The Manuscripts of the Korean Language Dictionary)'로 제목을 확정하였다.

4월 17일 동승학술재단, 4월 23일 국립한글박물관으로부터 각각 등재 동의서를 받았다. 5월 7일 제1차 보완 신청서 제출 이후, 6월 4일 '조건부 가결' 판정을 받았다. 이후 7월부터 11월까지 총 10차에 걸친 보완 신청서 제출이 이루어졌으며, 최종 명칭은 <근대 한국어 사전 원고>로 확정되었다.

라. 유네스코 제출 완료 (2025.11.)

2025년 11월 21일 세계기록유산 한국위원회 사무국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사무국에 등재신청서를 공식 제출하였으며, 11월 24일 국가유산청에서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12월 15일 준비위원회 마지막 모임이 개최되어 2년간의 추진 과정이 일단락되었다.

다시 현대적 근대성을 되살리자

가. 등재 추진의 학술사적 의의

본 등재 추진 사업은 한국어학사 및 민족운동사 양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조선말 큰사전>은 일제강점기 조선어학회가 민족어 수호의 일념으로 편찬한 우리나라 최초의 국어대사전으로서, 그 원고는 단순한 사전 편찬 자료를 넘어 식민지 상황에서의 언어 주권 투쟁을 증거하는 역사적 기록물이다. <말모이> 원고 역시 주시경 선생과 그 제자들이 1911년부터 착수한 근대적 국어사전 편찬의 효시로서, 한국 사전학의 기원을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이다.

이들 기록물이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될 경우, 이는 1997년 등재된 ‘훈민정음 해례본’에 이어 한글 관련 두 번째 세계기록유산이 된다. ‘훈민정음 해례본’이 문자 창제의 원리와 정신을 담은 기록물이라면, <근대 한국어 사전 원고>는 그 문자로 기록된 언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보존하려 한 근대적 노력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상호 보완적 의의를 갖는다.

나. 추진 체계의 적절성

이 사업의 추진 체계는 몇 가지 측면에서 모범적이라 평가할 수 있다.

첫째, 학제간 협력의 구현이다. 준비위원회는 언어학, 사전학, 역사학, 인류학, 서지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었다. 이는 기록물의 가치를 다각도로 조명하고, 유네스코 심사 기준에 부합하는 논거를 마련하는 데 기여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소장 기관 간 연대의 성공이다. 해당 기록물은 한글학회, 독립기념관, 동숭학술재단, 국립한글박물관 등 네 기관에 분산 소장되어 있다. 이들 기관으로부터 등재 동의를 확보하고 협력 체계를 구축한 것은 사업 추진의 필수 요건이었으며, 이를 원만히 달성한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셋째, 전문 인력의 적극적 활용이다. 국내외 저명 학자들의 확인서 확보, 전문 번역가에 대한 영문 번역 의뢰 등은 신청서의 완성도를 제고하는 데 기여하였다.

다. 명칭 변경 과정에 나타난 전략적 고려

신청 기록물의 명칭은 수차례 변경되었다. <큰사전 원고>에서 <근대 조선어 사전 원고>로, 다시 '언어 주권의 확립: 조선말 사전 원고'로, 최종적으로 <근대 한국어 사전 원고>로 확정되었다. 이러한 변경 과정은 다음과 같은 전략적 고려를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우선, '언어 주권(Linguistic Sovereignty)'이라는 개념의 도입은 해당 기록물의 역사적 맥락, 특히 일제의 언어 탄압에 맞선 민족어 수호 운동으로서의 성격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의 등재 기준 중 하나인 '세계사적 중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한 논거로 활용되었을 것이다.

한편, 최종 명칭에서 '언어 주권' 표현이 삭제되고 <근대 한국어 사전 원고>로 단순화된 것은 심사 과정에서의 피드백을 반영한 결과로 추정된다. 기록물의 본질을 명료하게 전달하면서도 특정 정치적 함의를 최소화하려는 조정으로 볼 수 있다.

라. 심의 과정의 특징과 시사점

2025년 3월 최초 심의에서 '보류' 판정을 받은 이후 총 10차에 걸친 보완 신청서 제출이 이루어졌다. 이는 세계기록유산 등재 심사의 엄격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준비위원회의 지속적인 노력과 대응 역량을 증명한다.

특히 6월 4일 '조건부 가결' 이후에도 9월까지 수차례 보완이 요청된 점은, 국내 심의 단계에서부터 국제 심사 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신청서 완성도를 높이려는 한국위원회의 철저한 사전 검토를 반영한다. 이러한 과정은 향후 유사 사업 추진 시 참고할 만한 선례가 될 것이다.


마. 향후 전망 및 과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국제목록 등재 심사는 통상 신청서 제출 후 1~2년이 소요된다.

따라서 본 기록물의 등재 여부는 2027년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년 2026년은 훈민정음 반포 580돌이자 한글날 제정 100돌이 되는 해이다. 이러한 시점에 <근대 한국어 사전 원고>의 세계기록유산 등재가 확정된다면, 그 상징적 의미는 더욱 클 것이다. 다만, 국제 심사 과정에서 추가적인 보완 요청이 있을 가능성에 대비하여 준비위원회 또는 후속 조직의 지속적인 대응 체계 유지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4. 마무리

한글학회의 <근대 한국어 사전 원고>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은 2년여에 걸친 체계적인 준비와 학제간 협력, 기관간 연대를 통해 유네스코 제출이라는 1차 목표를 달성하였다. 본 기록물은 일제강점기 민족어 수호의 역사를 증거하는 귀중한 자료로서, 그 세계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국제목록에 등재되기를 기대한다. 이는 한글의 우수성과 한국인의 언어 주권 의식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며, <훈민정음> 해례본과 함께 한글 관련 세계기록유산의 주요 축을 형성하게 될 것이다. 

필자 소개

세종국어문화원 원장으로 재직하면서 한국외대 교육대학원 객원 교수로 후학을 양성하고 있다. 한글 관련 세 개의 박사학위를 받은 학술 공로로 세종문화상 대통령상(학술)을 받았다. <한글학> 등 우리 말글 관련 126권(72권 공저)을 저술했다.

[붙임]

한글학회 <근대 한국어 사전 원고> 세계기록유산 등재 준비위원회 발자취

- 2023.11.13. <큰사전> 원고의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위한 준비위원회 구성을 시작함.
- 2023.11.28. '큰사전 원고 세계기록유산 등재 준비위원회'를 김주원, 이해은, 김한빛나리 위원으로 1차 구성하고 앞으로 한글학회 이사, 소장처 관계자, 서지학 등 관련 전문가 협의를 추진하여 구성하기로 함.
- 2023.12.27. 오전 10시 30분, 준비위원회 첫 회의를 비대면(온라인 '줌')으로 열(참석: 김주원, 이관규, 이병규, 이해은, 김한빛나리).
- 2024.02.21. 세계기록유산 등재 신청서 서식에 위원들이 분담하여 작성한 내용을 종합하여 국문 초고(안)을 만들.
- 2024.03.05. 오후 4시, 학회 회의실에서 준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첫 대면회의로 열(참석: 김주원, 이관규, 이해은, 반병률, 김한빛나리, 서면 의견: 이병규).
- 2024.05.16. '큰사전 원고 세계기록유산 등재 준비위원회' 구성을 마침(위원장: 김주원, 위원: 이관규·이해은·이병규·반병률·유철인·남길임·도원영·박동윤·김한빛나리).
- 2024.05.30. 한글학회에서 계획한 국제학술대회 계획안(주제: '조선말 큰사전 원고'의 사전학적 의미와 인류문화사적 의의)를 공유하고 수정, 보완 의견을 물어 수정한 뒤 문화체육관광부(국어정책과)에 예산 지원 신청을 함.
- 2024.06.10. 오후 5시, 학회 회의실에서 준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열(참석: 김주원, 이관규, 이해은, 반병률, 유철인, 남길임, 도원영, 김한빛나리).
- 2024.06.17. 등재 신청서에 '양성 평등(Gender equality)' 관련 내용을 추가하고 9월 23일까지 위원들의 의견을 주고받아 제3차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함.
- 2024.08.06. 오전 11시, 학회 회의실에서 준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열어 제4차 수정안을 바탕으로 수정 지침을 논의하고 다음 회의 때까지 수정·보완하기로 함
(참석: 김주원 위원장, 이관규·이해은·유철인·이병규·남길임·도원영·김한빛나리 위원).
- 2024.09.24. 오후 8시, 비대면(줌) 회의로 제5차 회의를 열(참석: 김주원, 남길임, 도원영, 유철인, 이관규, 이해은, 김한빛나리).
- 2024.11.20. 김주원 위원장이 신청서의 영문 번역본 초안을 만들.
- 2024.11.25. 오후 4시, 학회 회의실에서 제6차 회의를 열. 이날 회의는 등재 신청 기한에 맞추어 국문 신청서 작성을 마무리한다는 것에 대해 논의함(참석: 김주원, 남길임, 도원영, 반병률, 유철인, 이관규, 이해은, 김한빛나리, 서면 의견: 이병규).
- 2024.12.13. 등재 신청서에 전문가(신용하, 김경, 남길임, 이만열, 박한상, 이찬규)들의 확인서를 받음.
- 2024.12.19. 오후 1시 36분, 세계기록유산 한국위원회 사무국(국가유산청)에 우리나라 최초의 한국어 대사사전인 <조선말 큰사전>(모두 6권)의 편찬 원고의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위한 '2025년 세계기록유산 국제목록 등재 신청서'를 제출함.
- 2025.01.05. <한글 새소식> 제629호 <새해맞이 대담>(4~8쪽)에 “<조선말 큰사전> 원고의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준비하면서”란 제목으로 준비위원들의 대담 내용을 실음.
- 2025.03.14. 오후 3시부터 시작한 세계기록유산 한국위원회 심사회의(비대면)에 김주원 위원장과 남길임 위원이 참석하여 심사위원들의 질문에 대응함.
- 2025.03.18. 세계기록유산 한국위원회 사무국으로부터 국가유산기본법 제31조(세계유산등의 등재 및 보호)에 따른 세계기록유산 국제목록 등재신청 대상 선정을 위한 2025년 제1차 세계기록유산 한국위원회 심의 결과(대상 기록물은 보류로 하며, 2025년 5월 7일(수)까지 보완된 내용을 반영한 영문 등재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재심의하기로 한다는 내용)을 받음.
- 2025.04.02. 국립한글박물관에 공문으로 신청 동의서 협조 요청함.
- 2025.04.03. 세계기록유산 등재 대상 자료를 <말모이>와 <큰사전 원고(범례 포함)>로 국한하기로 하고 신청 기록물 임시 명칭을 <근대 조선어 사전 원고>로 바꾸어 신청서를 수정·보완 시작함.
- 2025.04.13. 세계기록유산 등재 신청 제목을 “언어 주권의 확립: 조선말 사전 원고(Establishing Linguistic Sovereignty—The Manuscripts of the Korean Language Dictionary)”로 하기로 함.

-
- 2025.04.17. 동송학술재단으로부터 ‘유물 등재 동의서’와 ‘자료 사용 동의서’를 받음.
 - 2025.04.23. 국립한글박물관으로부터 <말모이> 원고 등재 동의서를 받음.
 - 2025.05.07. 세계기록유산 한국위원회 사무국에 “언어 주권의 확립-조선말 사전 원고(1911-1957)”란 제목으로 제1차 보완 신청서(국문, 영문)를 제출함.
 - 2025.06.04. 세계기록유산 한국위원회 사무국으로부터 국가유산기본법 제31조(세계유산등의 등재 및 보호)에 따라, 등재 신청 대상 선정을 위한 2025년 제3차 세계기록유산 한국위원회 심의 결과(세계기록유산 국제목록 차기 등재 신청 대상으로 <조선말 큰사전 원고>를 조건부 가결함)를 받음.
 - 2025.07.18. 세계기록유산 등재 제2차 보완 신청서를 세계기록유산 한국위원회 사무국에 제출함.
 - 2025.07.25. 세계기록유산 등재 관련 제2차 소위원회에 김주원 위원장과 이관규·김한빛나리 위원이 참석함.
 - 2025.08.18. 세계기록유산 등재 제3차 수정·보완 신청서를 세계기록유산 한국위원회 사무국에 제출함.
 - 2025.09.09. 세계기록유산 등재 제4차 보완 신청서를 세계기록유산 한국위원회 사무국에 제출함.
 - 2025.09.18. 세계기록유산 등재 제5차 보완 신청서를 세계기록유산 한국위원회 사무국에 제출함.
 - 2025.09.26. 세계기록유산 한국위원회 사무국(국가유산청 세계유산정책과)으로부터 제5차 세계기록유산 한국위원회 전체위원회 회의 결과(7가지 수정·보완 사항)를 받음.
 - 2025.10.17. 위원들의 토론과 수정, 보완을 거쳐 세계기록유산 등재 제6차 보완 신청서(기록물 명칭: 근대 한국어 사전 원고) 국문본과 영문본, 그리고 참고용으로 요약문(Summary)을 세계기록유산 한국위원회 사무국에 제출함.
 - 2025.10.20. 세계기록유산 한국위원회 사무국으로부터 일부 수정 사항 반영하여 제출함(제7차 보완 신청서).
 - 2025.10.31. 세계기록유산 한국위원회 사무국에 제8차 보완 신청서(7.0. 역사적 맥락 내용 보완)를 보냄.
 - 2025.11.07. 영문 번역을 이 분야 전문가인 김문희 선생에게 맡기기로 하고 번역과 번역문 검토를 의뢰함.
 - 2025.11.14. 세계기록유산 한국위원회 사무국에 세계기록유산 국제목록 등재 최종 보완 신청서(제9차)를 제출함.
 - 2025.11.19. 세계기록유산 한국위원회 사무국에 세계기록유산 국제목록 등재 신청서 최종 보완 서류(제10차)를 공문과 함께 제출함.
 - 2025.11.24. 세계기록유산 한국위원회 사무국에서 <근대 한국어 사전 원고>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국제목록 등재신청서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사무국에 제출하고(2025. 11. 21.),하고 국가유산청 세계유산정책과에서 보도 자료를 냄.
 - 2025.12.15. 「큰사전 원고 세계기록유산 등재 준비위원회」의 마지막 모임을 가짐(참석: 권재일, 김주원, 김문희, 반병률, 유철인, 이관규, 도원영, 남길임, 이해은, 김한빛나리).

※ 출처: 편집부(2026). 한글학회 <근대 한국어 사전 원고> 세계기록유산 등재 준비위원회 발자취. <한글새소식> 641호. 한글학회. 16-17쪽

비상은 믿습니다

당연한 것을 낯설게 바라보는 시선이
교육을 움직이게 한다는 것을.

현장에서 출발한 고민이
다음 교육의 해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배움의 즐거움이
교육의 가장 강력한 연료라는 것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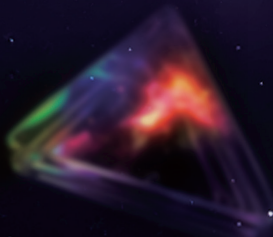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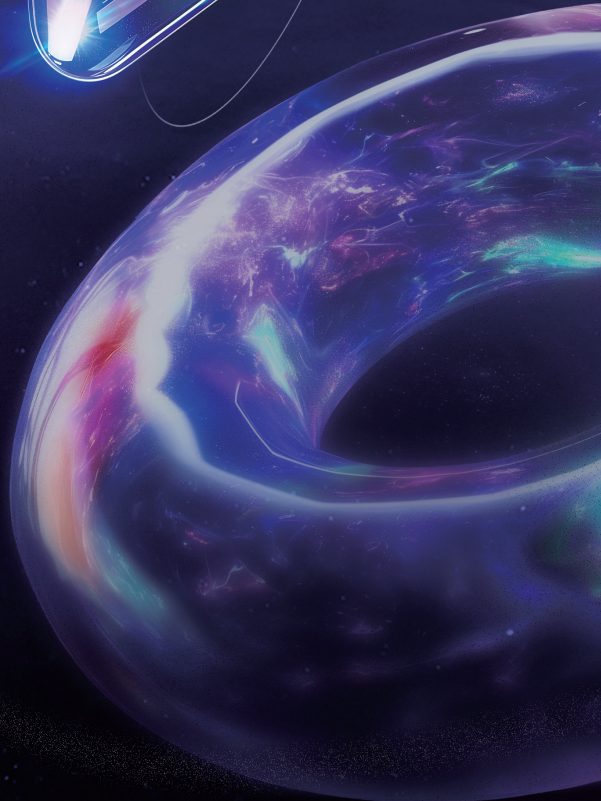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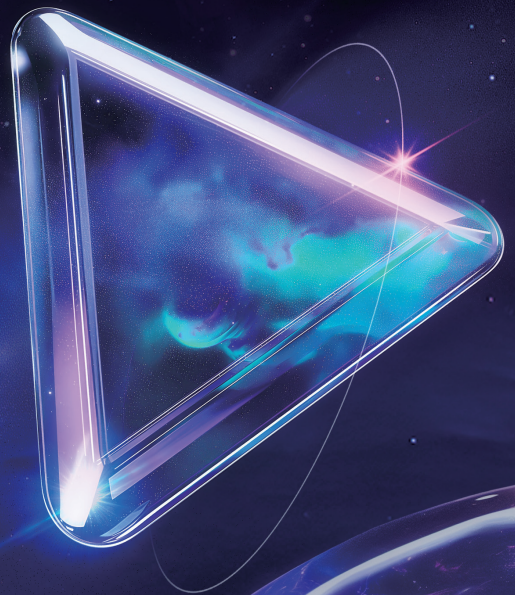
다름을 존중하는 태도가
교육의 가치를 더 깊게 만든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선택한 이 가치들이
곧, 우리 교육의 방향이 된다고 믿습니다.

이 믿음 하나하나가 모여,
새로운 콘텐츠와 플랫폼이 되어
교육의 새로운 전형을 만들어갑니다.

상상 그 이상 -

visang



선생님의 올바른 가치와
참된 가르침처럼
78년간 교과서를 만들어
온 사명으로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교과서 발행부수 1위 기업, (주)미래엔

*2025년 교과서 발행 부수 기준

MiraeN



미래엔 교수지원플랫폼 엔티치
www.m-teacher.co.kr

